

사람이 희망입니다.

KRIVET Issue Brief

2017

126호

발행인 이용순 | 발행일 2017년 6월 30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난 10년간 4년제 대졸자 노동시장의 변화

- 4년제 대졸 청년층의 고용률은 4.6%p, 정규직 취업률은 10.6%p, 선망직장 취업률은 9.3%p 감소함.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6년 71.6%에서 2015년 73.8%로 2.2%p 상승함.
- 직장 전반에 대한 만족 비율은 2.4%p,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비율은 1.9%p 하락하였고, 임금, 복리후생, 근로환경 등에 대한 만족 비율은 모두 증가함.
- 업무 내용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에 비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0년간 각각 10.8%p, 9.9%p 증가함.
- 업무-전공 불일치 비율은 인문계열이 35.9% → 42.4%로 6.5%p, 교육계열은 8.2% → 15.8%로 7.6%p 증가함.
- 취업자 중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2006년 8.4%에서 2015년 17.7%로 크게 증가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대졸자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청년 고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의 둔화와 인구 고령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추세임.
-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취업 지원 정책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개선 유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음.
- 4년제 대졸자의 취업 성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향후 정책 수립에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음.

|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2006년, 2015년 1차년도 조사자료(2005GOMS1, 2014GOMS1)
 - 2005GOMS1: 2005학년도(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하반기에 조사
 - 2014GOMS1: 2014학년도(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에 조사
- 분석 대상: 2005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졸업한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조사 당시 연령이 35세 이하인 25,987명 (2005년 졸업자 14,417명, 2014년 졸업자 11,570명)이며(의약계열 졸업자 제외),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적용함.
 - 선망직장 취업자는 대기업(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과 외국인회사, 정부기관, 공기업 및 정부 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함.



02 취업 성과 변화

| 정규직 취업과 선망직장 취업이 크게 감소하여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을 견인함.

- 4년제 대졸자 고용률은 2006년 76.6%에서 2015년 72.0%로 4.6%p 감소함.
 - 공학계열은 78.1% → 75.0%로, 교육계열은 72.2% → 69.1%로 각각 3.1%p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음.
 - 반면 인문계열은 74.1% → 68.3%로 5.8%p, 사회계열은 79.4% → 73.7%로 5.7%p, 자연계열은 68.5% → 63.3%로 5.2%p, 예체능계열은 83.0% → 76.1%로 6.9%p 감소함.
- 정규직 취업자는 2006년 63.1%에서 2015년 52.5%로 10.6%p 감소하여 정규직 취업이 크게 감소함.
 - 공학계열은 70.2% → 61.0%로 9.2%p 감소한 반면, 인문계열은 56.5% → 45.1%로 11.4%p, 사회계열은 68.8% → 56.5%로 12.3%p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정규직 취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짐.
- 선망직장 취업률은 2006년 29.1%에서 2015년 19.8%로 9.3%p 감소하여 선망직장 수요가 크게 감소함.
 - 공학계열은 36.3% → 26.5%로 9.8%p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음.
 - 반면 인문계열은 23.5% → 17.0%로 6.5%p, 사회계열은 30.3% → 20.8%로 9.5%p, 자연계열은 22.2% → 14.7%로 7.5%p, 예체능계열은 15.9% → 9.1%로 6.8%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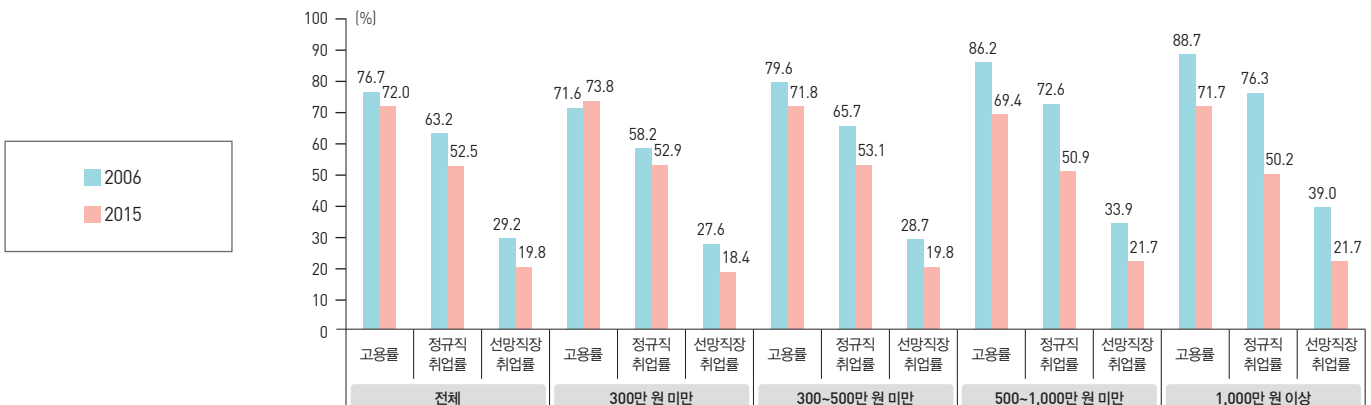
〈표 1〉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성과

(단위: %)

	고용률		정규직 취업률		선망직장 취업률	
	2006	2015	2006	2015	2006	2015
전체	76.6	72.0	63.1	52.5	29.1	19.8
인문계열	74.1	68.3	56.5	45.1	23.5	17.0
사회계열	79.4	73.7	68.8	56.5	30.3	20.8
교육계열	72.2	69.1	59.4	44.8	45.1	25.0
공학계열	78.1	75.0	70.2	61.0	36.3	26.5
자연계열	68.5	63.3	54.8	42.5	22.2	14.7
예체능계열	83.0	76.1	52.3	46.1	15.9	9.1

| 저소득 가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개선됨.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은 2006년 71.6%에서 2015년 73.8%로 2.2%p 상승함.
- 정규직 취업률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일수록 감소폭이 작음.
 - 300만 원 미만 가구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률은 10년간 5.3%p, 300~500만 원 미만 가구 청년층은 12.6%p, 500~1,000만 원 미만 가구 청년층은 21.7%p, 1,000만 원 이상 가구 청년층은 26.1%p 감소함.
- 선망직장 취업률도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일수록 감소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청년 대졸자의 선망직장 취업률은 10년간 9.2%p, 300~500만 원 미만은 8.9%p, 500~1,000만 원 미만은 12.2%p, 1,000만 원 이상은 17.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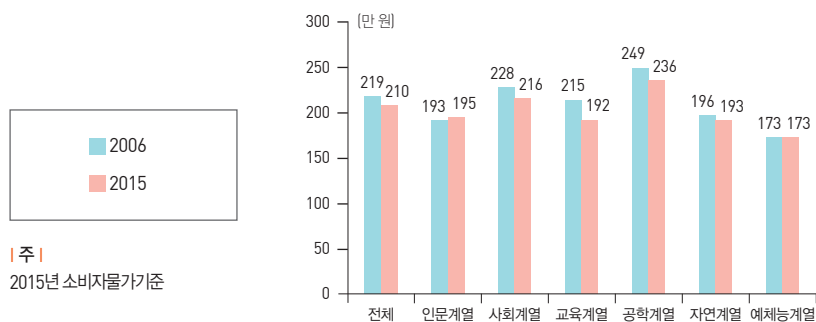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별 노동시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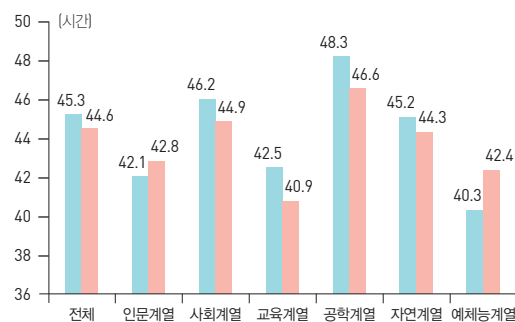
03 근로조건 및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변화

10년간 청년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함.

- 월평균 임금은 2006년 219만 원에서 2015년 210만 원으로 9만 원 감소하였고 전공계열 간 임금 격차도 감소함.
 - 인문계열은 193만 원 → 195만 원으로 2만 원 상승한 반면, 사회계열은 228만 원 → 216만 원으로 12만 원, 교육계열은 215만 원 → 192만 원으로 23만 원, 공학계열은 249만 원 → 236만 원으로 13만 원, 자연계열은 196만 원 → 193만 원으로 3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체능계열은 173만 원으로 동일함.
- 근로시간은 2006년 45.3시간에서 2015년 44.6시간으로 0.7시간 감소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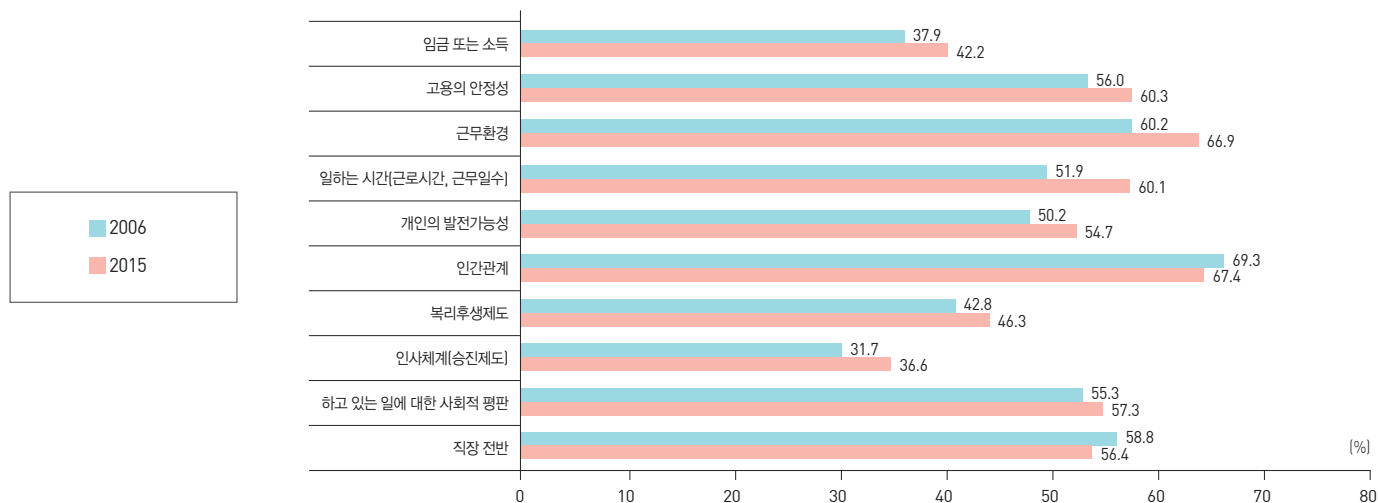
[그림 2] 전공계열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그림 3] 전공계열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장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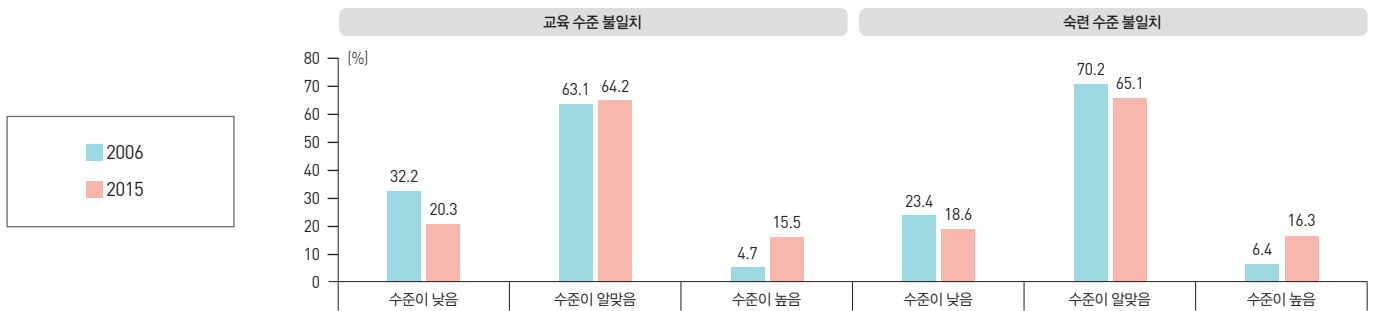
- 직장 전반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06년 58.8%에서 2015년 56.4%로 2.4%p 감소함.
-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비율은 69.3%에서 67.4%로 1.9%p 감소함.
 -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비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 비율은 가장 높음.
 -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일수)에 대한 만족 비율이 2006년 51.9% → 2015년 60.1%로 증가폭이 가장 큼.



[그림 4]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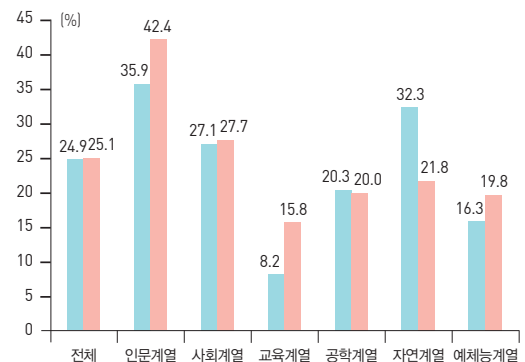
업무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 증가함.

- 업무 내용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에 비해 낮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고, 높다고 답한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업무 난이도가 증가하였음을 시사.
 - 업무 내용이 자신의 교육 수준에 비해 낮다고 답한 비율은 32.2% → 20.3%로 11.9%p 감소한 반면, 높다고 답한 비율은 4.7% → 15.5%로 10.8%p 증가함.
 - 업무 내용이 자신의 기술 수준에 비해 낮다고 답한 비율은 23.4% → 18.6%로 4.8%p 감소한 반면, 높다고 답한 비율은 6.4% → 16.3%로 9.9%p 증가함.



[그림 5] 교육과 숙련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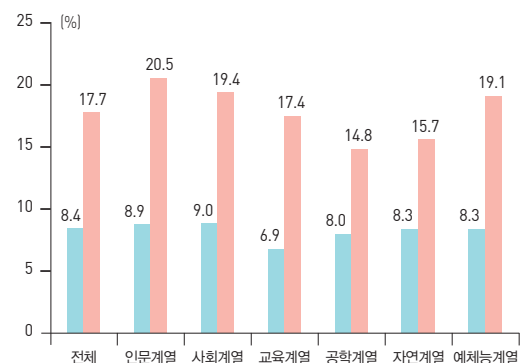
- 업무 내용과 자신의 전공이 불일치한다고 답한 비율은 24.9%에서 25.1%로 0.2%p 증가에 그침.
- 인문계열은 35.9%에서 42.4%로 6.5%p, 교육계열은 8.2%에서 15.8%로 7.6%p 증가하여 전공 불일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반면 사회계열은 27.1% → 27.7%로 0.6%p 상승에 그쳤고,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은 감소함.



[그림 6] 업무-전공 불일치 비율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청년 대졸자의 이직 준비 비율이 크게 증가함.

- 현재 취업자 중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2006년 8.4%에서 2015년 17.7%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신규 취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공학·자연계열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큼.
 - 공학계열은 8.0% → 14.8%로 6.8%p 증가하였으며, 자연계열은 8.3% → 15.7%로 7.4%p 증가함.
 - 인문계열은 8.9% → 20.5%로 11.6%p 증가하였으며, 사회계열은 9.0% → 19.4%로 10.4%p, 예체능계열은 8.3% → 19.1%로 10.8%p 증가함.



[그림 7] 이직 준비 비율

04 시사점

- 정규직 취업과 전망직장 취업의 감소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을 견인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과가 정규직 일자리와 전망직장 일자리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과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소득 가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상대적으로 개선됨.
 - 정부지원 장학제도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의 대학생 지원 정책의 결과, 학업충실도 및 취업 준비 노력의 증가로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업무 내용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에 비해 높다고 답한 비율이 증가하여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이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인문·교육·예체능 계열의 전공 불일치 비율이 증가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공교육의 개선이 필요함.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이직 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좋은 일자리 여부 및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전공 불일치 문제가 이직 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양 정 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